

FinBERT-FOMC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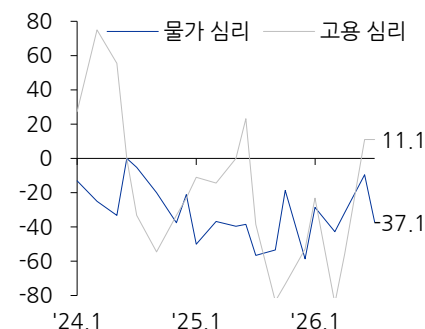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FOMC 회의록: 물가 심리 재악화, 조건부 긴축 편향

- “ 7월 FOMC 회의록은 9대 3 동결이라는 결과보다 매파적이었음. FinBERT-FOMC로 분류한 물가 관련 심리는 0.37로 6월(-0.10) 대비 급락한 반면, 고용 심리는 +0.11로 2개월 연속 플러스(+)를 유지함.
- “ 기준금리는 3.50~3.75%로 동결(찬성 9, 반대 3)됨. 해먹·카시카리·로건 3인이 25bp 인상을 주장했고, 이사회 인사 중 반대는 없었음. **반대표 외에도 '몇몇(several) 참석자'가 인상을 선호했다고 기록됨.**
- “ 조건부 문구가 핵심임. '다수(many) 참석자는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긴축이 필요할 것'으로 판단했고, 일부는 현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평가함.
- “ 위원들은 경제 활동과 노동 시장이 견조하고 안정적이라 평가한 반면, 지정학적 위험과 AI 투자, 관세 변수가 향후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음.
- “ 회의록 전체 톤(Sensitivity)은 74.2%로 6월 78.2% 대비 4.0%p 하락함. 긍정 비중 60.1%(-2.3%p), 부정 비중 20.9%(+3.5%p). 다만 6월이 표본 최고치였고, 7월도 평균(72.3%)은 상회함.
- “ 심리 악화는 물가에 집중됨. 물가 관련 62개 문장 중 긍정 11개·부정 24개로 -0.37, 2026년 평균(-0.30)을 하회함. 본문도 가격 상승의 광범위한 확산과 AI 관련 품목의 가격 압력을 지적함.
- “ 반면 고용 심리는 +0.11로 6월과 동일, 2024년 5월 이후 첫 2개월 연속 플러스임. 실업률 4.2%, 상반기 고용 증가 폭이 2025년 평균을 상회한다는 인식임(단 고용 문장 13개).
- “ 두 심리의 격차(고용-물가)로 정의한 매파 압력 지표는 +0.48로 2025년 6월 이후 최고치임. 최근 장기금리 상승과 방향성이 일치함.
- “ 회의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워시 의장이 제안한 회의 횟수 축소임. 현재 연 8회 정례 회의를 6회로 축소하는데 대한 의견을 구함.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올해의 회의 일정에도 변화는 없음.
- “ 그 동안 워시 의장이 진행해왔던 포워드 가이드스 폐기, 성명서 축소, 5개 태스크포스(TF)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임.
- “ 7월 FOMC 이후 7월 고용(-2.3만명)과 7월 근원 물가(+2.5%)가 매파 명분을 악화시켜 9월 동결 확률은 64%로 높아진 상황.

물가 심리 재악화, 고용 심리는 (+)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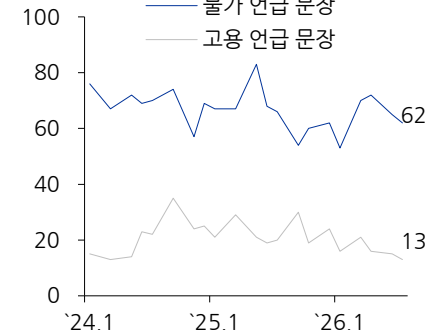
(pt, 긍정 - 부정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물가 언급 문장은 고용의 5배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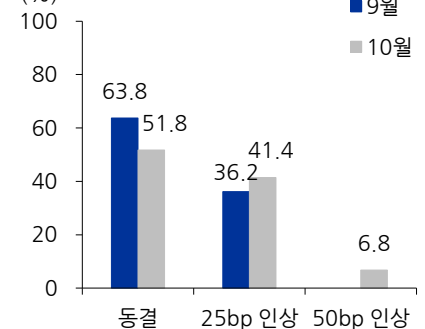
(문장 수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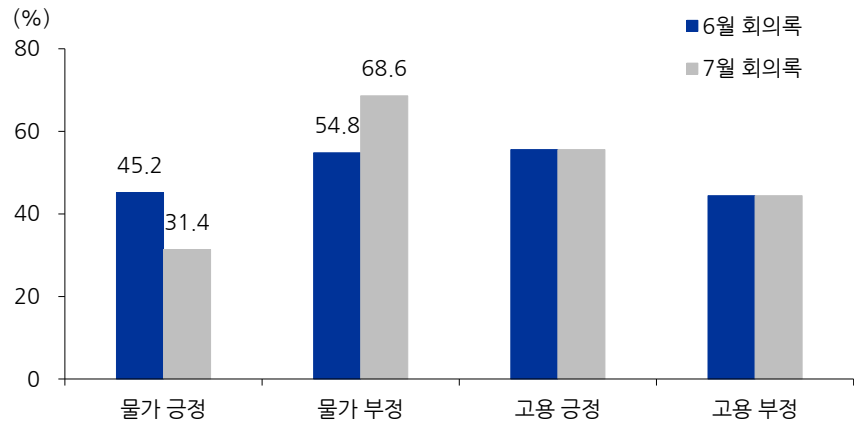
9월 FOMC는 동결 전망이 우세

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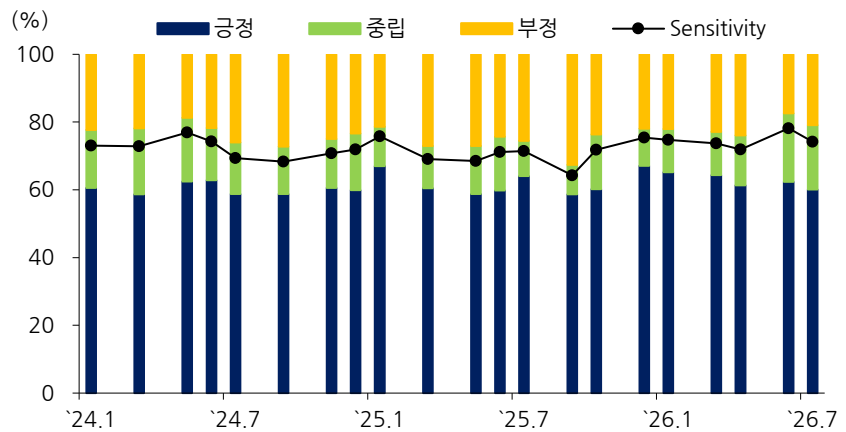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6월 대비 물가 부정 문장 비중 급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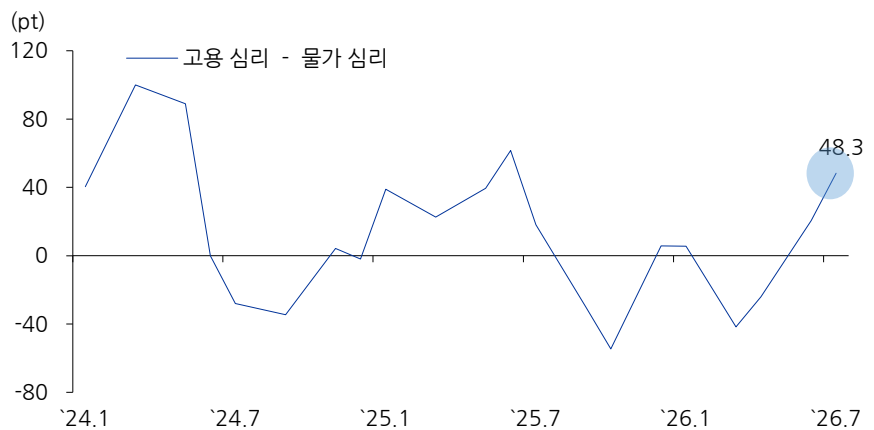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진투자증권

회의록 문장 심리 구성과 Sensitivity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매파 압력 지표는 2025년 6월 이후 최고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